



이 중  
〈시인 / 정보화정책포럼 회장〉

# 「생과자 한조각」의 敎訓

월드컵 열기가 지구촌의 온도를 높이고 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뚫기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쉬운 것은 아니라는 월드컵 본선 진출인데, 아시아 지역에서 세번씩이나 월드컵에 진출한 단 하나의 나라가 우리 한국이다. 그래서 우리의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태양열 만큼이나 뜨겁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보니,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중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이 실력의 평준화 현상이다. 독일, 네덜란드, 이태리, 스페인 등 세계 랭킹의 유럽 강호들과, 이들과 세계 축구계의 패권을 양분하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권의 강자들이 초반 격돌에서 이번이 속출하고, 뿐만 아니라 이들보다 처지는 나라들과의 경기에서 혼쭐이 나고 있다.

정상급 실력팀들의 힘이 부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따라 잡겠다는 후발국가들의 그동안의 숨은 노력과 의지가 돋보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스페인과의 첫판 대결은 빅수로 끝났다. 경기내용으로 보아 이길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한판 을 운 좋게 따냈다고 해서 우리 축구가 스페인 축구를 따돌리거나 추월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의미는, 그런 앞선 팀을 따라잡고, 그들의 수준에 한껏 밀착해 가려는 끈기있는 노력과 열정이 더없이 값진 데에 있다.

세계화니 국제화니 해서 일과성 캠페인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너나 없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기술에 공을 들이고 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그보다 앞서서 그렇게 하려는 의식과 정신력이 달아올라야만 한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의 지난 20여년의 발전상을 보면 저절로 즐거운 웃음이 나온다. 세계는 한국의 성장을 기적에 가깝다고 하고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를 배우려고 애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칭찬에 너무 인색하다. 과장포대 해서 자기자랑을 늘어놓은 것은 물론 경계해야 하겠지만, 자기 발전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없이 어찌 남의 성장과 발전을 제대로 쫓 수 있겠는가.

자기집 장맛과 김치맛도 제대로 맛볼줄 알아야 남의 집 반찬도 제대로 칭찬 할 수가 있다. 지나친 자기 비하는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 뿐이다. 우리 백화점 제대로 둘러보지 않고서 관광코스인 외국의 백화점에 열이 빠지거나, 외국인은 무조건 정직하고 선량하다고 믿어 그 나라엔 소매치기도 사기꾼도 없는줄 알고 방심했다가 귀한 외화를 날려버리는 딱한 사람도 있다.

우리에게 개선하고 고칠 점이 아직은 많다. 막연하게 선진국 꿈무니만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열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와 도덕성을 똑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가 급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나아지고 좋아진 지금의 상태는 그대로 값지고 귀한 자산이다. 이 자산 위에서 보람도 느끼고 적당히 멋대로 겨워하는 것, 하나도 나무랄게 없다. 긍지와 자부심이 없이 내일은 없다.

8.15 해방직후 아버님의 손에 이끌려 부산의 광복동 제과점에 가서 귀한 생과자 한조각을 맛보던 그날을 잊지 못한다. 가난 속에서도 아버님은 멋으로 아들에게 생과자 맛을 보여주신 것이리라. 그건 결코 사치가 아니라 진한 삶의 멋이며 신선한 충격으로 지금도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생명체 구실을 한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났다. 오늘의 우리 생과자 맛은 세계 정상급이다. 우리 자신의 혀와 생활관습이 정상급에 익숙해 있으니 그에 맞추려는 노력은 그동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싶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같은 숨은 노력과 눈물겨운 정성이 있음으로 해서 눈부신 오늘과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흐뭇하다. [4]